

함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나눔 vol.03

함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나눔 vol.03

어려움을 나누는 것
서로를 위로하는 것
마주 보며 웃는 것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
기꺼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참 든든한 일입니다.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지 Vol.03

- 04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장유고등학교 교사 김경숙
- 12 신(新)들의 행진 거제유치원 수석교사 신승화
- 16 특수교사, 수업을 고민하다 김해은혜학교 교사 김순숙
- 20 보통 걸음으로 한 발씩 천전초등학교 교사 한소현
- 24 함께하는 수업 설계, 함께하는 수업 나눔 김해신안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옥경
- 28 참 좋은 학교를 꿈꿉니다 진성초등학교 교장 김동욱
- 32 행복학교 새내기들의 전학공 경험담 양산중학교 교사 최선희
- 38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한다는 것 함양중학교 교사 손지미
- 42 수업에서 배우다, 동료에게 배우다 활천중학교 수석교사 정종희
- 46 흔들리면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진주제일중학교 교감 송희정
- 50 전학공이 쓰아 올린 작은 공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권승경
- 54 온라인에서도 온전히, 배움중심수업 나누기 아림고등학교 수석교사 윤점이
- 58 중심을 수업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경남정보고등학교 교장 양재석
- 62 서로 기대고, 같이 손잡고, 함께 나누고 장유고등학교 교사 김경숙
- 72 2020 수업나눔 한마당을 돌아보며 어디에 있든, 우리! 여기! 함께!



‘함께’여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그리고 새로운 모습의 등교수업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고 많은 것이 처음 걷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모여 수업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망은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든 전문적학습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나누며 원격수업을 정착시키고, 수업혁신을 지속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든다는 것,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0년, 최선을 다한 노력과 헌신으로 경남교육을 오롯이 지켜주신 선생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0. 12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려운 때는 늘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준비란

'소통과 공감'이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곧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업전문가 교사는 힘든 시기일수록

'어떻게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제안 배경

학교 - 전문적학습공동체 :

학교교육과정 속 정례화
업무담당부서지정 + 관리자 참여

학교 밖 연구회
성과수용

수업연구 중심의 운영으로 수업전문성향상

수업전 협의회 + 수업공개 + 수업후 협의회
- 학년별 협력 / 전교사 참여

학교 안 연구회
한계극복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배움중심수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실천의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다양한 학교 밖 연구회의 성과를 수용하고, 학교 안 동아리형 연구회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교가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것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입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란?

'운영을 정례화한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수업전문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유용한 방안'이며 '교사의 집단지성 발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배움중심수업 실천과 확산을 위한 토대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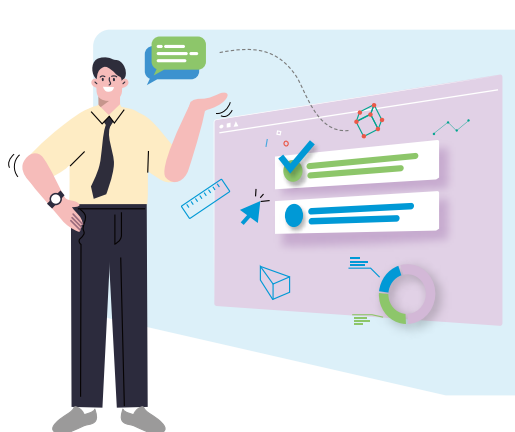
-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성 촉진

일과시간 내 정례화, 예산 교부를 통해

- 교사의 수업연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기반 조성

일과시간 내 정례화, 교원 수를 근거로 예산지원 : 전문가라는 교사의 지위를 인정

일과시간 내 정례화와 예산 교부를 통해 교사의 수업연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고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성을 촉진하여 배움중심수업의 실천과 확산의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이유입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이유는?

일과시간 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정례화, 교원 수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가라는 교사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업혁신 ^{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도교육청 단위의 제도적 지원으로 정례화, 체제화



수업전문가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활동은 '수업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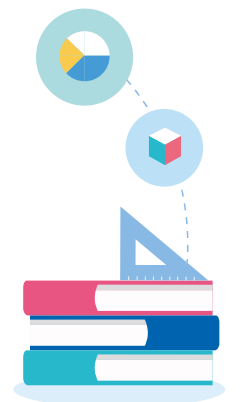
때문에 일상적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수업전문가에게 최적의 연수장소이며, 수업은 최고의 연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전문성향상에 주로 사용되는 '사례중심 현장연구'의 방식, 학교에서 수업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는 수업전문가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과정입니다.

[제안]

수업컨설팅은 수업나눔을 위한 지원 방법 :

관점의 변화에 적응한 좋은 컨설턴트를 모시고, 수업 전 협의회-수업나눔-수업 후 협의회-성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컨설팅을 통한 전교사 연수로 수업전문가 교사 함께 성장하기!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수업나눔

수업전문가의 전문성향상 방안



교사는 수업전문가입니다.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업을 연구합니다.

수업나눔을 준비하고, 참관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안]

수업나눔 교사 선정은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전 교사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 다만 1학기는 배움중심수업 실천교사 및 고경력 교사, 2학기는 저경력 교사 및 전입 교사라는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팀!

수업나눔이란?

전교사 '일상의 수업나눔'은 수업에서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확인하고 상호연수로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며 수업성찰을 통해 전문성 향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운영 안내 : 2월과 8월, 학기 시작 전 준비

1. 교육과정 읽기

(1) 교과교육과정 정리하기

교과의 성격	
교과역량	
교과 목표	

(2) 교과교육과정 구성요소와 내용체계 - 영역별 핵심질문 만들기

교과교육과정 구성요소와 내용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학생들이 해당 교과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하는 것
내용요소 + 기능 = 성취기준				
예) 과학(1) [일반화 된 지식은 물체교류가 온다하기] [관련속성/양상형식/수용특기/생존특기/대응특기/탐구특기]				

<사례>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한문의 이해	한자의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음, 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구성	읽기
한문을 관통하는 핵심질문 만들기	한문의 어휘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 밀접한 결합관계가 있다.	한자의 부수	읽기
			한자의 필순	읽어내기
한문을 관통하는 핵심질문 만들기	한자의 어휘	한문의 품사에는 단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한자의 배열	표현하기
			단어의 화용	읽기/쓰기
			실사와 허사	조사하기
			품사의 활용	분석하기

(1) 연결은 왜 기록하려고 하는가?
(2) 일상생활 속의 언어 어떻게 활용하는가?
(3) 문장 속에서 실사와 허사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4) 기록은 어떻게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과정 용어의 의미

성격	교과가 갖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교과역량 제시
목표	교과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
내용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으로 구성
영역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
핵심개념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
일반화된 지식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
내용요소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
기능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
성취기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 (= 내용요소+기능)

(3) 단원별 핵심질문 만들기 : 핵심 질문으로 탐구주제 제시

성취기준	핵심개념	일반화	핵심질문
대단원(프로젝트) 주제			
단원(프로젝트)의 핵심질문/주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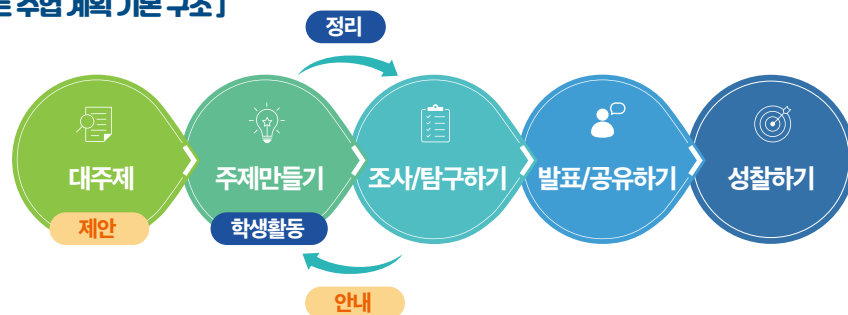
성취기준	[12한문 102-06] 글을 빠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12한문 102-07]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핵심개념	일반화	핵심질문
대단원의 주제 : 서술방식은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문 독해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漁父辭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식은?
	한문 독해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許生傳	사람의 일생은 항상 교훈적인가?
	한문 독해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伯姊贈真夫人朴氏墓誌銘	관습과 형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단원(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주제	글의 형식은 생각을 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교육과정 재구성

함께 만든 학교의 비전 속에서 학년별 비전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 융합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시성, 자발성, 현장성/지역성을 기반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집단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수업 계획 기본 구조]



3. 교과운영계획표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과운영 계획표는 성취기준과 평가계획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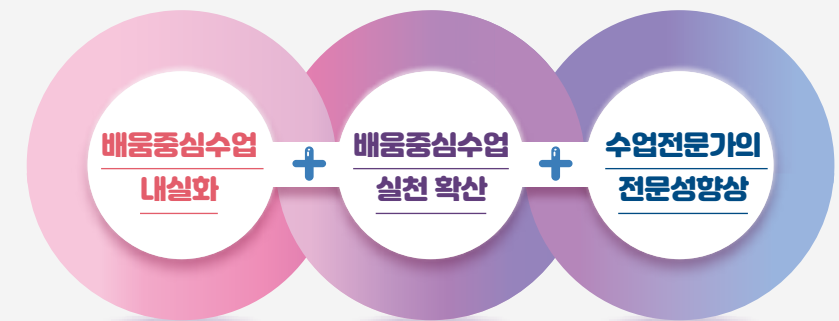
4. 수업설계

교육과정 문해역량을 토대로 교과의 성격, 본질, 역량, 내용체계 등을 어떻게 매 수업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는 수업전문가 교사의 일상적 고민입니다.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집단지성의 발현은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준비와 실천에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찰하는 과정.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수업설계란?
 배움중심수업은 교육과정을 자원으로, 모둠활동/협동학습을 기반으로, 경청 속에서, 질문으로, 토론으로, 공유로 이루어집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배움중심수업의 내실화와 실천의 확산,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수업을 바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움중심수업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연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한 배움중심수업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굳건히 합니다.



글·구성 장유고등학교 교사 김 경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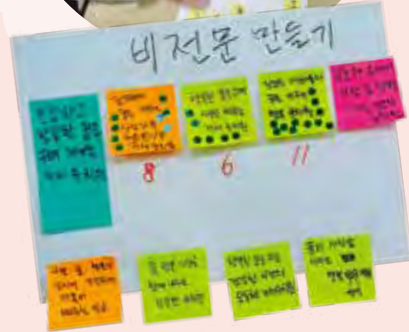


신(新)들의 행진

거제유치원 수석교사 **신 승 화**

새로움으로 만나다

2020년 3월에 문을 여는 10학급의 신설 유치원에 신규 원장, 신규 원감, 신규 교사 11명(전담 포함), 신규 행정실장, 신규... 그리고 2020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무엇보다 더 새로운 팬데믹 시대! 말 그대로 '신(新)들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전문 만들기>

낮선 이름, 전문적학습공동체

올해부터 유치원에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업무를 자청했습니다. 새 학기 준비로 정신없던 2월이 지나고,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이 세 차례 미뤄지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모두 함께 모여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유치원 비전, 교육목표를 수립하였고,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新)' 교사들은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했으므로, 3월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연수 6회 등 5월 입학 전까지 총 9회의 교육과정 연수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담당 연령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배움에는 모두가 필요하다!

거제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 교원이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첫째, 마중 역할을 한 지원팀 운영

신규교사가 대부분인 학습공동체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연령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팀'입니다.

지원팀은 각자 3회 정도 연령별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였으며, 미리 고지한 참여주간 1~2주 전부터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연수를 받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은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고, 원감은 업무 경감을 도왔으며 수석교사는 교사 연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팀 참여>



‘놀이 사례 소개’와 ‘평가와 기록에 관한 워크숍’ 등 누리과정에 맞춘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수는 주로 다모임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정성을 모았습니다.

둘째, 연령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공간 확보

일과가 끝난 후 담임들이 교무실에 모여 각자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학부모와 통화하는 것은 유치원 교무실에서는 익숙한 광경입니다. 의사 표현과 전달이 미숙한 유아의 특성상 상담 대부분이 학부모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무실에서의 교사 연구 활동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반이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빈 교실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신설이라 유휴공간을 활용,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독립된 연구 및 협의 공간을 마련하여 연령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확보>

셋째, 주 1회 모임 시간 및 성찰하는 ‘신(新)’의 시간 30분

다 함께 하는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시간이 관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정기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 1회 모임을 꼬박꼬박 가져 준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이끌고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新)의 시간.

주 1회 모임과는 별도로 매일 30분씩 오후에 교사 개인을 위한 성찰의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이 시간은 원내의 그 누구도 회의를 소집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순수하게 일과를 돌아보며 교육과정 운영과 유아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전학공 수업 나눔 협의회>



<속닥속닥 참여 소감록>

놀이라 쓰고 배움이라 읽는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나눔 주간!

수업 공개에 대한 사전협의와 준비를 함께 하니 부담이 덜하고 좋은데, 놀이가 곧 수업이 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추려니 무질서해 보이는 놀이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고민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전 교사가 하는 수업 공개는 놀이가 가진 속성, 즉 호기심, 흥미, 몰입, 주도성, 자율성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나아가도록 구성했습니다. 놀이하듯 느슨하게 계획된 재미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나눔. 함께 하는 교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배어나왔습니다.

신(新)들의 비상을 꿈꾸다

11월 초, 전문적학습공동체에 관한 참여 소감록에는 대부분의 교사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협의의 과정이 다양한 수업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우리 유치원 구성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고민들은 지속적인 지원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자고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과 아이들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교사들에게는 자긍심 또한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은 ‘신(新)들의 행진’이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의 귀하고 값진 경험과 성찰로 내년, 2021년은 ‘신(新)들의 비상’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짝반짝 은혜별무리'는 우리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름입니다. 특수교육대상인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하였지요.

특수교사, 수업을 고민하다

김해은혜학교 교사 김순숙

함께 수업을 준비하다



교사수 70명, 다양한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150명이 넘게 근무하는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에 개교한 특수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 이후 직업관련 전공과까지 25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종류와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도 매우 다양합니다. 김해은혜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완전 참여형' 교수·학습모델수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수업입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수업의 경우 기본 수 범위(1~10, 단위를 달리하여 각 수당 12가지 방법으로 수를 익힘)에서 약속을 정해 휠체어에 앉아서도 수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120차시의 교수·학습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문자 해득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음운 중심 문자 해득 프로그램 '바른 소리 ㄱㄴㄷ'(112차시)을 개발하고 국어수업에 활용했습니다.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며 음운의 소리를 들려주고, 점차 'ㅡ' 음의 소리를 즐기고 뒤에 오는 모음을 더 크고 강하게 들려주어 음절을 인지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학생들 중 그림책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례가 많아졌고, 동료 교사들도 편리하게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음악 수업을 위해 각종 악기, 색깔 악보, 음원 등을 활용한 ‘오락(五樂)’ 프로그램(50차시)도 개발했습니다. 과학 교과 내용 중 ‘동물의 한살이’ 학습을 위해 사는 곳, 먹이, 생김새 등에 관한 30차시의 교수·학습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수학의 화폐 교수·학습자료(50차시)를 보완하였고, 통합교과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주제 중심 동화 연극 활용 수업 프로그램(120차시)을 제작·보급하였으며, 실과 수업에서는 직업(30개)과 관련된 도구를 구비하여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배움 나눔 은혜공작소’에서는 직업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제작, 첫 일 자리 프로그램 메뉴얼 개발, 이지(Easy) 직업훈련 세트(set) 마련으로 실제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600차시 분량의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수업에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매일 똑같은 수업이 교실만 다른 곳에서 재생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수업의 모습인가?’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하고,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학교의 상황은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던 것이죠. 시각장애 학생

들에게는 점자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수화가 있는데 구어(입말)로 의사소통이 힘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는 무엇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각 이미지로 정보를 주고받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AAC)를 연구하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마포구 AAC 마을을 견학하고 환경의 시각화를 위해 AAC 상징을 활용하여 교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전보다 원활해지자 교실에도 활기가 더해지고, 학생들도 배움에 한발짝 다가섰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대 수 있는 언덕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 할 것인가?’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교사인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수업을 고민하는 특수교사에게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기대 수 있는 언덕입니다. 동료의 수업을 보고 좋은 수업의 방향을 배우고, 수업 관찰을 통해 어디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지 성찰하며,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위한 교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발견하는 배움과 돌봄 속에서, 다시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은혜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찾은 길입니다.

<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AAC) >



보통 걸음으로 한 발씩

천전초등학교 교사 한 소 현

“ 감염병 유행이라는 사태를 맞아 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냈습니다. 원격수업, 등교수업.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기대고 서로 손잡으며 지내 온 시간이 떠오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했던 선생님들. 이제 한 번 맛본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면서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



작은 걸음으로 내딛기

지난해까지 우리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꾸려 나가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전출입이 잦았던 것이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행복학교가 된 올해는 다른 해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좀 단단하게 운영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다 보니 ‘이제야 길을 찾은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교사의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안에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일과시간 중 운영’을 정례화 했습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 군별과 탐구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거기에 전교사가 함께 하는 다모임도 진행 하는 등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 체계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기

3월, 새학기가 시작되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우리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일과시간 내 정례화라는 체제 속에서 무리없이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팀이 원활하게 운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교육관이 다르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도 차이가 있으며 교사마다 자신이 담당한 학급 분위기도 똑같지 않은 탓에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전문적학습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교육과정을 함께 읽고, 성취기준을 찾아 보며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으로 꽃 피우기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년 초에 세웠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 과학, 미술 세 교과 중심의 ‘식물을 표현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프로젝트로 수업나눔을 하였습니다.

수업 전 협의회와 수업공개, 이어진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수업은 더 이상 혼자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년 교사들이 함께,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해야 하는 임무를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동학년 교사들이 모여 같은 주제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할 작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협력의 즐거움을 발견했던 것도 새롭습니다. 게다가 수업나눔에서, 혼자라면 미처 보지 못했을 학생들의 배움의 지점을 실컷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은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집단지성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기

2020년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해였습니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사태를 맞아 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냈습니다. 원격수업, 등교수업.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기대고 서로 손잡으며 지내 온 시간이 떠오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했던 선생님들. 이제 한 번 맛본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면서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수업 설계, 함께하는 수업 나눔

김해신안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옥경

“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함께 수업의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수업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것,
한 해 동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일부터 시작하다

학교·학년 교육과정을 함께 만든다는 거창한 목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따뜻하게 서로 손을 잡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학년 연구실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서로의 학교 생활 나누기, 경청과 지지로 존중받는 경험 만들기’ 등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주 만나 서로 이해와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관계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 힘으로 학년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꾸렸습니다.



학년별 주제를 정하다

수업나눔을 중심에 둔 전학공 운영을 목표로 구체적인 학년별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학년별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나눔 활동을 계획하면서 1,2학년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한글 읽기·쓰기 능력 기르기’, 3,6학년은 ‘회복적생활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4학년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수업’, 5학년은 ‘한 책 읽기 프로젝트 수업’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어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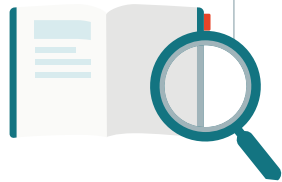
혼자 준비하고 평가받는 수업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 역량을 모아 함께 준비한 수업이라 수업나눔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공개에 대한 각 교사의 부담도 줄었고 수업나눔을 배움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수업을 배우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중심은 수업나눔입니다. ‘수업 설계-수업 나눔-수업 성찰’로 단계를 설정하고 학년별 주제에 따라 수업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5학년의 ‘한 책 읽기 프로젝트 수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업 설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성취기준을 정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선정했습니다. 수업을 7차시로 구성하고 수업나눔 계획을 세운 후 ‘인터뷰 교육연극, 황금문장 찾기, 인권편지 쓰기, 인물의 하루 일과 영어로 표현하기’ 등을 활용한 배움중심수업 설계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수업 나눔]

함께 만든 수업 설계안으로 첫 번째 공개수업을 하고 수업 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배움을 나누었습니다. 협의회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설계안을 수정하여 두 번째 공개수업을 했습니다. 다시 수업 협의회를 갖고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수업안을 만들고 공유했습니다.

[수업 성찰]

수업 설계 과정과 수업나눔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수업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한 수업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협의하면서 수업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5학년의 ‘한 책 읽기 프로젝트 수업’은 담임교사 외에 도덕, 영어 전담교사도 수업나눔을 함께했습니다. 전담교사의 수업나눔은 각 반 담임교사가 수업 참관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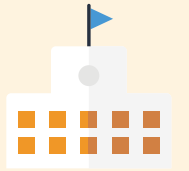
혼자 준비하고 평가받는 수업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 역량을 모아 함께 준비한 수업이라 수업나눔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공개에 대한 각 교사의 부담도 줄었고 수업나눔을 배움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함께 수업의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수업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것, 한 해 동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참 좋은 학교를 꿈꿉니다

진성초등학교 교장 김동욱



좋은 학교?

교장으로 첫걸음을 하며 마음속에 다짐한 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교육을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진성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친구가 없어 외로운 학생들’, ‘복식 학급이 된다면 전학을 가겠다는 학부모’,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교육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교사’ 등 다양한 문제들로 가득한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 이런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흔히 학생은 가고 싶고, 부모님은 보내고 싶으며, 교사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를 가장 좋은 학교라고들 말합니다. 그런 좋은 학교를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선생님들과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학교의 비전도 세웠습니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학교,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여 참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각 학년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는 데에 장애 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도 길게 가졌습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각종 경쟁 위주의 운동회, 학예회 및 대회는 과감히 없애는 일부부터 시작하여 학교의 중심을 수업에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수업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작은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어떻게?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모임입니다. 작은 우리 학교는 동학년이 없어 수업내용을 협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았던 방안이 학교 밖으로 범위를 넓혀 이웃 작은 학교와 연합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안에서 우리학교는, 작년부터 이웃 학교의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대곡초등학교와 같이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내년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학교,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여 참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학교 새내기들의 전학공 경험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실천기

행복학교에 대한 환상도 편견도 많다. 행복학교에서 한 해를 보낸 전입 교사들은 소감이 어떨까? 특히 젊은 교사들의 반응이 궁금해 자리를 마련했다. 신규부터 5년 내외 경력의 교사들 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솔직하고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Q. 이전에 경험했거나 올해 경험한 전학공, 어땠어요?

강윤희 이전 학교에서 2년 정도 경험했어요. 첫째는 교과별로, 다음 해엔 학년별로 진행했죠. 1시간씩 아이들을 남겨서 수업을 나눈 둘째 해에는 부담스러웠고, 업무랑 섞여서 바빴어요.

고은영 제가 경험한 전학공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학습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수동적으로 모여 적당히 사진 찍고 흠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빨리하고 운동하러 가자'며 기운 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전문적학습공동체인가?' 의아하고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행복학교에 오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전학공을 왜 하는지 철학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참여한다고 할까요.

조소영 수업나눔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전 협의를 통해 수업을 어떻게 만들지 서로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때는 수업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우리 과의 시선을 벗어나서



다른 과 선생님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잘 배우고 싶은 마음에 컨설턴트를 요청하고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어요. 컨설팅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만큼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도 보였어요. 처음부터 전학공의 철학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차경옥 저는 신규교사라 이전의 경험은 없어요. 임용 공부할 때 이 말을 처음 접했는데 '이상적인 이론,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먼저 임용된 친구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전학공이 너무 착실히 진행되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처음이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신규지만 저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배교사들에게 물으니 알려주셨어요. 처음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와 닿는 것 같아요.



Q.

담임의 업무를 덜어내는 이유 중 하나는 통합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년 내 통합교육과정을 하면서 어땠나요?

고은영 학년이 다함께 참여하는 지식 시장은 올해 처음 봤어요. 선배교사들의 주도 아래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는데, '이래서 이런 걸 하구나'하고 배우게 되었어요. 통합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교과별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타교과 선생님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협의가 공식적이예요. 학년 차원에서 판을 짜고, 예산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

이지환 중3은 입시 후 학기말 수업 내실화라고 해서 학교마다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올리는데, 이 학교에선 이 과정을 거의 대표적 활동으로 삼습니다. 3학년 교육과

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이죠. 이런 성격의 교과통합 교육과정은 처음인데, 여러 선생님들과의 소통, 많은 사람의 품, 준비 등을 어지간히 해야 해서 부담이 컸어요.

조소영 시험을 치고 나서 흐지부지되기 쉬운 시간에 대해 고민하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 학기말 교육과정의 경우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적 고민을 하고, 비슷한 활동이 겹치지 않게 배려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차경옥 학교 와서 제일 놀란 것이 통합교육과정이에요. 통합교육과정도 책에서 본 것인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년에서 진행해보며 이해하게 되었어요. 학생에게 의미 있을 것들을 교과별로 터놓고 깊이 있게 의논을 거듭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교무실에서 서로 보여주면서 기뻐했어요.



고은영 주제를 선정하는 안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에 따라 산으로 가거나 제대로 배우거나 할 것 같다고나 할까요. 2학년의 통합교육과정도 주제를 잘 뽑아내시는 선배들의 안목이 좋아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차경옥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배움도 장점이구요. 내가 가르치는 영어는 도구교과라 다른 과랑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교과서 본문은 '영국에 사는...'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 현실과는 멀다고 할 수 있죠. 이번 1학년 프로젝트 주제가 '코로나로 인해 바뀐 직업세계, 어떤 직업 가치를 가져야 할까?'이었어요. 관련 영어 텍스트를 직접 써서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몰입했고, 영어의 필요성도 느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잡기 힘든 주제를 잘 설정한 효과이고,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학교 교육의 가치를 알려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강윤희 이전 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보통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준비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니까 거부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협의가 잘 되었고, 수업도 각자 잘 진행했는데, 마지막 결과물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분위기도 능동적이지 않고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능동적인 분위기와 마무리까지 잘 되는 우리학교와 비교되는 점인 것 같아요.

Q.

전학공이 도움이 되나요? 아쉬운 점은 없나요?

차경옥 첫째라서 너무 좋습니다. 교사가 되면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을 친구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학급의 날, 융합 수업 같은..... 근데 혼자서 튀면 미움받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든지 제안하면 바로 지지해주고 '함께 하면 된다, 하자!하자!'하는 분위기에요.

고은영 할 때는 힘이 좀 들긴 하지만 하고 나면 뿌듯해요.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체계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할 때는 어떤 활동이든 1회성에 그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떤 주제로 어떤 판을 펼치고, 누가 일을 나누고,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공유할 것인가, 전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내년에는 날마다 일지를 써 보고 싶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언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환 아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넉넉히 체감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공동체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혼자 하거나 따로 하면 힘든데, 다수가 좋은 마인드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임하게 되고, 동참해야겠다는 반성도 일어납니다.



고은영 아쉬운 점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진행되어서 놀랄 때도 있었거든요. 또, 일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젊은 교사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치 않는데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는 뿌듯했지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차경옥 맞아요. 가끔은 '이거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랄까요?

이지환 교사들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이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합의를 가지고 있다면 잘 진행할 수 있을 텐데, 합의가 없을 때 서로 눈치 보게 되고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Q.
개인적으로, 혹은 학교에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조소영 이 학교는 배울 수 있는 선배교사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좋아요.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고은영 올해는 뭘 모르고 쫓아다녔다면, 내년에는 알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서 나중에 다른 학교에 가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차경옥 저는 이대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순환

여러 시도와 노력이 모여 결국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었음을 확인하며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는 말은 반가웠다. 학교가 수업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꼽는 젊은 교사들. 그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에너지 때문일까, 배움과 성장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젊은 교사들의 멋진 모습 때문일까. 이야기를 나누며 참 고맙고 행복했다.

연이어 무거움도 밀려왔다. 교육적 가치와 아울러 교사들의 피로도가 적정선을 넘지 않을 방안은 없을까? 젊은 교사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선배 교사들은 어떤 동료가 되어야 할까?



양산중학교 교사 강윤희, 고은영, 이지환, 조소영, 차경옥, 최선희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한다는 것

함양중학교 교사 손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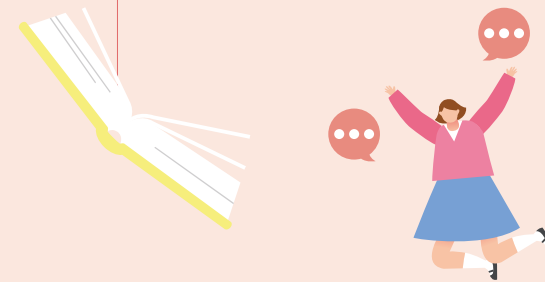
“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반복되는 갈등과 주저 속에서도 우리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좋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전학공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전학공 참여는 의무를 넘어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

좋은 경험이 필요하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낯설고 불편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테지요. 저는 전학공이 새로 온 교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교사와 전입교사가 많았던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새 학년맞이 연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토론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교사는 업무의 부담을 덜어 좋았고 다른 교사들은 함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업무의 빠기 없이 더하기만 할 경우나 소통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경우의 전학공은 업무로만 남기 마련이니까요.

전학공을 통해 의미있는 경험을 해본 선생님은 해가 바뀌거나 학교를 옮겨도 참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함께 세웠던 많은 계획들은 실행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원격수업 기간 동안 점점 배움에서 멀어지고, 교사들은 새로운 기기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수업 동영상을 찍고 과제를 검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도 각자의 어려움을 짊어져야 하는 시기. 우리는 함께 모여서 두 차례의 교내연수를 열었습니다. 밴드라이브 수업 따라 배우기, 과목별 원격수업사례 나누기.

과목별 수업사례를 나누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서 하고 있는 좋은 원격수업 방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접속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하느라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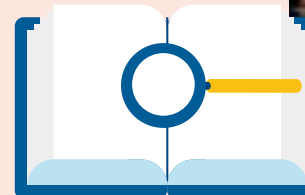
2학기, 전학공을 통해 배움에서 점점 멀어지고 소외되는 학생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전체 교사가 함께 해야만 안정적인 실시간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한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100%에 가까운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

당장 접속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돌봄을 통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전학공의 힘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학공의 모든 경험은 소중하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인문학 연수와 학년다모임, 주제다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점은 올해의 긍정적 성과입니다. 그래도 전학공의 핵심은 '수업나눔'입니다. 우리학교 전학공은 소그룹 수업나눔을 실시했는데요, 수업 전 협의회와 수업 후 협의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작년만큼, 아니 조금만 더 알차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수업나눔과 외부컨설팅의 중요성을 일깨운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학공의 모든 경험은 소중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낙담하지 않아야 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 내년에 더 잘하면 되겠지요.



좋은 학교의 모습은 학교마다 다르다.

좋은 교사의 모습도, 좋은 학교의 모습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수업도 마찬가지로 테지요. 학교마다 학생의 상황에 맞게 배움과 돌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EBS 동영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전학공 운영을 통해서 절감한 것은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이 교사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은 함께 연구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많은 선생님들이 전학공을 통해서 좋은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업에서 배우다, 동료에게 배우다

활천중학교 수석교사 정종희

“올해 수업 나눔을 하면서 더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수업을 배우는 과정’ 이것이 수업 나눔의 의미입니다. 관찰한 사실에 근거한 수업 협의에서, 수업 참관 교사와 수업자의 수업 성찰에서 교사는 배웁니다.”

처음 접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아이들이 등교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정작 등교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수업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학생들과 학생 사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관계도 안 맺어져 있어서 원격 수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어려울수록 서로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나눔이 가능할까?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 해야할까?’

‘원격 수업 준비로 시간도 부족한데, 수업 나눔을 할 여유가 있을까?’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도 아니고, 일반 학교인데 이 상황에서 수업 나눔이 가능할까?’

‘수업 나눔을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일제식 수업 좌석 배치에서 아이들의 배움을 잘 관찰할 수 있을까?’

‘수업 친구’는 이런 고민 끝에 찾아낸 우리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교과 학년 상관없이 원하는 선생님 두 명 이상 수업 친구가 되어 수업 나눔 활동계획을 세우고,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수업을 직접 보고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 협의회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친구’는 이런 고민 끝에 찾아낸 우리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교과 학년 상관없이 원하는 선생님 두 명 이상 수업 친구가 되어 수업 나눔 활동계획을 세우고,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수업 친구’ 간 수업 나눔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온라인 연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수업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연수보다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교과 교사와의 수업 나눔은 가르침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타교과 교사가 수업을 관찰하고 함께 협의하는 것은 수업 연구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학기 때에는 매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시간에 사전 촬영한 수업 영상을 보고, 이어서 수업 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직접 참관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을 보고 협의하는 것은, 하나의 수업을 전체 교사가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수업을 보는 방법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학공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중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간에 배우는 관계를 만들려고 했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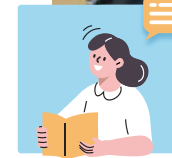
“실제로 다른 동료 선생님의 수업을 보지 않았으면 시도해보지 못했을 모둠활동을 수업을 참관한 동학년의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협동적 배움을 위하여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수업디자인에 대해 더 고민하여,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협력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모둠활동을 할 수 있었고, 수학의 연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모둠활동을 할 때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동료 선생님의 수업을 보지 않았으면 시도해보지 못했을 모둠활동을 수업에 참관한 동학년의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협동적 배움을 위하여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 나눔을 하면서 더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수업을 배우는 과정’ 이것이 수업 나눔의 의미입니다. 관찰한 사실에 근거한 수업 협의에서, 수업 참관 교사와 수업자의 수업 성찰에서 교사는 배웁니다.

수업 나눔에 대한 부담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진지한 수업 참관과 수업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문가 집단인 교사로서의 성장은 더 빠르게, 더 즐겁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진주제일중학교 교감 송희정



우리학교는 행복학교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는 일에 익숙한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서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라는
갑작스런 변화를 맞아 그에 따른
고충과 분주함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수없이 바뀌는 학사일정에 대처하느라
마음이 더 바빴던 시간을 보내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배움중심수업 실천은 다소간의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다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집단지성의 대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결국 전문적학습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움중심수업 철학으로 시작하다

올해 우리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배움중심수업 철학을 다지는 특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수업나눔을 통해 서로의 배움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죠. 매주 수요일 5교시에 수업을 공개하고 6, 7교시에 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일과시간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정례화하여 수업개선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장면에서 학생의 배움을 관찰하는 시간과 협의회를 통한 나눔으로 확실히 교사들은 수업성찰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업나눔을 하기로 하다

1학기. 수석교사의 쌍방향 원격수업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와 모형을 연구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학년별 모임과 전체 모임을 번갈아 하면서 원격수업 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통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기에게 적절한 수업 방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학기에는 어떻게든 수업나눔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9월, 10월, 11월 수업공개 및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수업 전 협의회를 통해 수업설계를 함께 하고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교사가 참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수업을 촬영하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협의회를 통한 상호배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여 수업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을 관찰하였습니다. 코로나시대의 배움중심수업, 모둠학습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업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배움에서 모둠활동을 통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에 지금은 원격수업에서도 모둠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수업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운영의 중심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두다!**

‘수업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업 연수와 수업 전 협의회, 수업공개, 수업 후 협의회를 제대로 실시하는 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어떻게 도울지 논의하고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의견과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일상의 수업을 함께 나누는 것은 행복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과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행복학교 운영의 중심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두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돌아보면 변화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더욱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려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학공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권승경



자발성을 부르는 마중물

여러 학교를 근무해도 배움 중심 수업이나 전학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선생님은 소수일 때가 많았습니다. 수업 나눔에 참여하는 데에도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저절로 만들어지는 전학공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올해 분성여고로 와서 첫 번째로 수업을 열었습니다. 수업혁신 담당자인 내가 먼저 수업을 열고 다른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용기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되긴 했지만 7분의 선생님이 2학기 수업나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다양한 수업 열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으로 인해 넘어야 할 장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관찰하는 수업공개와 참관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수업을 촬영하여 영상을 보고 협의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업 전 협의회도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동아리 혹은 학년별 협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아직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몇몇 선생님들도 수업설계안을 제출하는 정도의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업 전 협의회를 통한 함께 하는 수업설계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기에 일정을 조정하면서 새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발표수업, 직소 모형, 배움중심수업, 프로젝트수업, 모둠협력수업 등 교과목의 특성과 교사의 수업관에 따라 다양한 수업들이 펼쳐졌습니다. 일상적 수업을 부담없이 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소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

전학공 운영을 연수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열정과 역량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교사들의 수업을 함께 설계하고, 수업을 영상에 담고, 다시 해당 영상으로 수업 임상을 하는 일들이 힘들다는 생각,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사람은 바로 '나'임을 이제는 압니다.

“어려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들은 학습자료와 연결하면서,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듣고 이해하면서 함께 배우고 있었다.”

“교사의 역할은 설명하고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것임을 배웠다.”

수업 후 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이 서로의 배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선생님들이 촬영영상을 보고 진행한 협의회에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모습은 고단함을 밀어냈습니다. 수업 임상과 협의회를 통해 배운 바를 수업에 적용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동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제시해 주는 것!



낙천적인 멘탈이 필요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업 나눔에 참여한 8명의 교사들은 전학공이 쏘아 올린 작은 공들이자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교내 수업 동아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행복학교의 핵심은 수업혁신이고 이를 위해 전학공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학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학공에 참여하는 것이 수업전문가인 교사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변화에 약간 천천히 반응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며 무언가를 함께 하는 과정이 쌓이는 풍토 속에서 혁신의 싹은 움튼다. 새로운 무엇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행복학교의 핵심은 수업 혁신이고 이를 위해 전학공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온전히, 배움중심수업 나누기

아림고등학교 수석교사 윤점 이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교차되는 부담에도 학생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기에 올해에도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면담을 신청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과제를 수행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와서 낯선 친구들이 어색했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말문이 트이고 친해져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졌다’는 1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저간의 어려움을 다 날려주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학생들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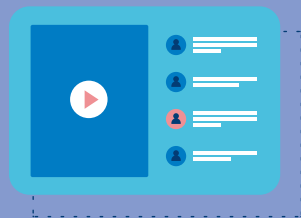


교사의 성장, 서툴지만 수업을 열다.

zoom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사회의실 활동을 관찰하고자 6월에 수업을 열었습니다. 배움중심수업으로 학생과 교사, 학교의 성장을 이룬 우리 학교는 4년차 행복학교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는 올해에도 이어진 것이죠. 소문을 들으신 이웃 학교 교감 선생님과 세 분의 선생님께서 수업 참관을 오셔서 함께 수업 임상을 하셨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프로젝트의 결과물 공유입니다. 지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직접 제작한 마을 뉴스와 정책 제안을 나누는 활동이었습니다. 전체 수업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모둠별로 사회의실에서 다른 모둠의 발표를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전체 공유를 통해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PPT를 준비한 학생과 발표하는 학생은 각자의 집에 있으면서도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작성하며 경청했고,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모둠의 결과물을 평가했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교사들도 4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4개의 교실에 별도 설치한 모니터로 참관하였습니다. 전체 수업 진행과 모둠별 토의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올라 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배우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나눔 진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업 후 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볼까요?

나○○ 선생님 이번 수업은 신선해요. 실시간 수업은 일제식으로만 진행될 것이라 편견을 깨트렸어요.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나 당혹감이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없네요. 학생들을 믿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박○○ 선생님 학생들의 활동이 명확하게 디자인되었어요. 다문화처럼 자기 이야기, 지역사회 이야기여서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자신과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통해 관계와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신○○ 선생님 모둠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살펴보았어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배우는지 살펴보니, 발표 내용 중 인터뷰와 설문 등 조사 내용이 많을수록 정보가 탄탄해서 학생들이 배움을 많이 끌어내는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도 어떻게 정보를 잘 제시하면 배움이 많이 일어날까 고민이 되었어요.

임○○ 선생님 선생님의 진행도 돋보입니다. 한 모둠의 발표가 끝나고 다음 모둠으로 넘어갈 때 선생님의 연결이 자연스러웠어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 사용과 설명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했고요. 지금까지 수업 과정에서 반복한 경험이 있어 소통이 잘 된 것이겠죠.

신○○ 선생님 모둠에서 말을 하지 않던 C학생, D학생은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고 격려해주니 조금씩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김○○ 선생님 사전 안내와 공유가 잘 된 듯해요. 지난 번 일제식 자리 배치에서도 토론, 모둠 수업을 했던 임○○ 선생님 수업과 함께 이 수업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막막할 때 맞잡는 손

올해처럼 수업 고민이 많았던 해가 있을까요? 행복나눔학교 1년 차에 행복학교의 철학을 공유할 여유도 없이 코로나19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이 커질수록 새 길을 열 열쇠는 동료들과 서로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업 나눔인 셈이죠. 수업 전 협의회에서 관계가 어색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의실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배우고, 소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가 있어 고마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지 문구 하나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에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닐까요? 동료선생님들 덕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중심을 수업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경남정보고등학교 교장 양재석

2020년 3월.
10년 만에 다시 부임한 특성화고등학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실습과 체험 중심 직업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마음에 품고 바라본 곳에 우리 학교 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방법'으로 선택한 원격수업을 준비해야 했다.



의견을 모으는 데서 시작하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청의 지침만
기다리던 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학년부 단위로 또 부서별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원격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잘 갖추어진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보는 길,
무엇보다도 수업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5월이 오고 학생들이 등교했다. 즉시
학생생활관련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했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간에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첫날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겪었던 애로사항과 교사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가까운 몇몇 동료들과
개인적으로 나누던 자신의 이야기를
공론화하며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업이 힘들고 생활지도가 어렵
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
들과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이 나아갈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을 모으는 데서 시작하자’

협의하는 시간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는 것, 느리더라도 방향을 정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틀림없이 우리 학교가 변하고 교육 전반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학교와 함께 하는 수업공동체

지난 5월, 전학공 담당부서에서 준비한 특강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방안’은 학교에 수업나눔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었다.



그리고 이어진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자의 ‘배움중심수업 안내’는 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

우리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근처 진주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한 수업연구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독서나눔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간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등등이 그것이다. 독서나눔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같이 읽었던 [교사 119](송형호 저), [감정폭력](베르너 바르텐스 저), [떨림과 울림](김상욱 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우종명 저) 등의 책은 마음그릇을 넓히는 데에도 또 교육철학에 대한 성찰의 자리를 갖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공간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공간도 만들고 있다.

공간혁신은 학교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결정할 사항이 많고 복잡한 과정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혁신을 위한 인터뷰’로 의견수렴을 시작하고 공간혁신 퍼실리테이터 (강○○, **건축사무소 소장)와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그려보는 과정도 함께 했다. 특히 중앙로비, 학습카페, 벽지, 정원, 텃밭 등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공간이라 공간 자체가 민주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 옆엔 든든한 동료야!

2020년은 누구에게나 선명히 기억될 한해이다. 어떤 교사는 올해가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또 어떤 교사는 정말 많이 배운 한 해였다고도 한다. 다들 고되고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혼자 겪지는 않았다. 우리 옆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었다.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2021년엔 중심을 수업으로 옮기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업이 힘들고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이 나아갈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에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전체 교사를 향해 담당자가 던진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교사들의 수업 변화를 위해서 학교경영 책임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관리자의 참여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연수 내용이 떠올랐다. 우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려고 한다. 우리 학교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의견을 지지, 지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에 참여하는 것.





서로 기대고, 같이 손잡고, 함께 나누고

2020 수업혁신 전학공 컨설턴트들의 솔직 대담

앞을 새도 없이 시작한 나눔 속에서 '우리'라는 믿음이 자리잡습니다.

바쁘게 주고 받는 이야기 안에 그대로 담긴 학교의 미래.

'어렵다, 힘들다'는 말은 수업연구 안에서 교사의 눈이 늘 학생을 향한다는 말, 교사의 배움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들로 이어집니다.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학교가 다시 배움중심수업을 고민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함께 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김경숙 학교 상황부터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김민주 우리 양산중학교는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대응이 유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방역을 지키면서 체육대회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고 '온라인 체육대회 개최'라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학생의 호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정용우 우리학교는 학년부마다 방역 혹은 수업 등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속한 2학년은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식 위에 방역요건이 충족이 되면 학급자치와 프로젝트, 어울림 한마당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결과대로 진행했습니다.



김재석 우리학교는 49명의 학생이 5월말부터 등교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원격수업을 할 때는 불안했는데 7월이후는 수업공개와 참관도 이루어졌고 2학기부터는 교내 수업공개와 외부공개도 하는 등 전학공도 내실있게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보형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사들의 전학공 참여가 두드러진 것이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연수를 했고 또 컨설턴트를 모신 수업컨설팅으로 수업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변혜라 우리학교는 3월 등교가 연기되자 바로 TF팀을 꾸리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이 가능한 수업을 고민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밴드로 정하고 활용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밴드 라이브로 수업나눔과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기말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교사는 대체로 만족스러워한 데 비해 학부모는 교사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수업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안윤주 특성화고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자들은 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전문교과와 일반교과와의 협력이 다소 어렵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전문교과 교사들은 ‘수업이 곧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교과와의 융합에 관한 고민으로까지 나아가는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김경숙 일반고도 전학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녹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해내는 것도 힘에 부칠 때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아는 것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데 치우쳐서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혜진 고등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교과별 전학공을 운영한 우리학교도 힘들었습니다. 수업나눔을 계획하면서 관련 부서가 ‘수업나눔을 위한 공개수업자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2~3개의 교과가 참여했다고 하시다군요.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이 가능한 수업을 고민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밴드로 정하고 활용했습니다.
- 변혜라

변혜라 우리학교는 다양한 연수 개설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했고 전학공 협의시간을 월 2회 정도로 최소화해서 운영했습니다. 경력교사들의 참여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한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위기 대처의 길이 다르다?

변혜라 봉명중학교는 학년협의회의 결정 사항들을 교장 선생님이 잘 수용하시나요?

정용우 물론입니다. 학년별 계획에 따라 학교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허용적인 관리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교수업을 시작하자 상황에 따라 한 주 안에 여러 번 일과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년별 협의 과정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보형 우리 총무교 교장, 교감선생님도 수업 나눔과 특강이 진행 될 때 마다 일과시간 내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시고, 또 교사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습니다.

정용우 간혹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마다 변화가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적응을 위한 적절한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석 올해 우리학교에는 두분의 전입교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오신 분들이라 처음에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학공을 통해 수업나눔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길을 찾은 듯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하던 과정이 함께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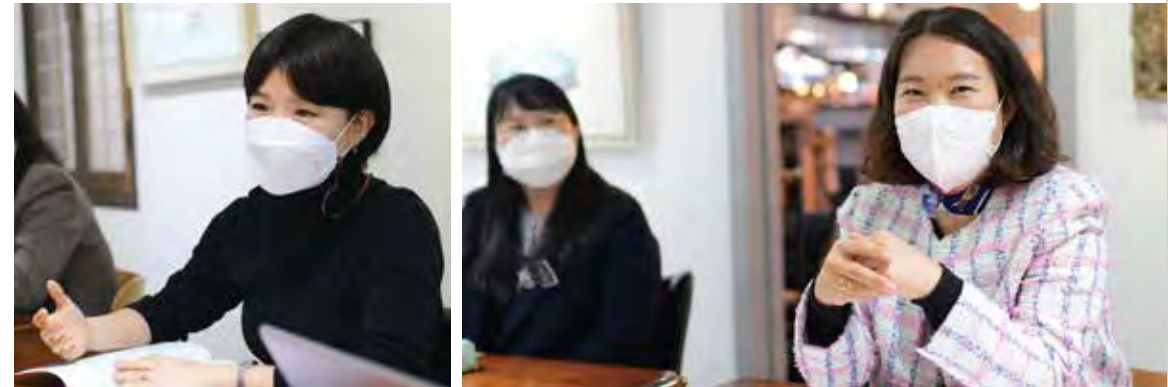
이교정 행복학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학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는 위기대처의 질이 달랐습니다. 협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학교, 전학공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학교는 평소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방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림고의 경우에는 동료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학생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수업나눔으로

김재석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둠활동도 처음에는 방역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망설였는데 함께 하면서 학생의 불안도 없어졌습니다. 1학년의 경우 전학을 많이 왔는데요, 수업을 통해 서로의 관계도 점차 좋아지면서 안정되어가는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주 우리학교는 소규모 수업나눔 모임인 수업친구를 운영했습니다. 4~5명 단위로 수업 전 협의회, 수업나눔, 수업 후 협의회를 진행했구요.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둠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체 공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변혜라 우리학교는 수업 전 협의 후 수업을 촬영하고 수업사례나눔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수업나눔을 고민하다가 이런 방식을 찾았던 것이죠. 올해가 힘들긴 했지만 교사에게는 의미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것이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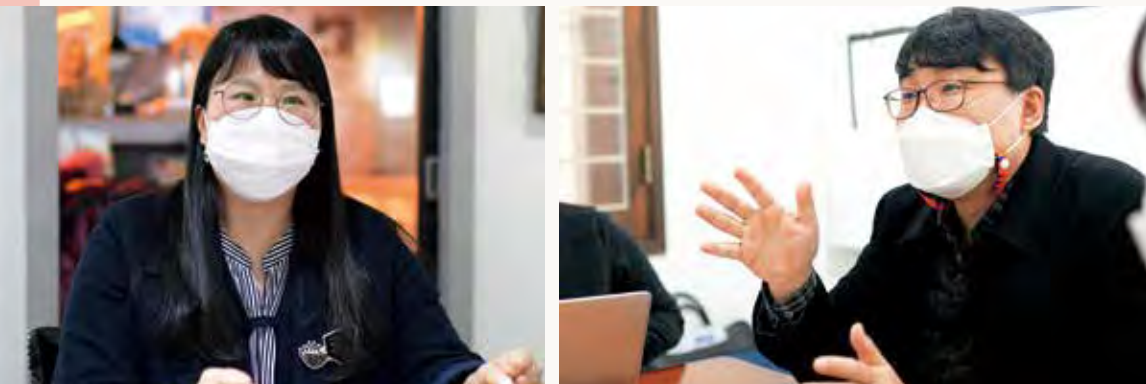
조보형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석교사는 수업 전후 협의회를 포함한 일상적 수업공개로 교사의 수업연구에 적극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수석교사가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학공을 의미있게 운영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이죠.

변혜라 교육과정의 종적 횡적 연계는 수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올해는 교과의 융합주제를 정하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여행, 함안지역 체험활동 등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협의 후에 가능한 활동을 하기도 했죠.

김민주 우리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얼마전 '코로나와 우리'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지식시장으로 나누기도 했죠. 우리학교의 수준과 역량에 맞게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그리고 배움

정용우 지금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달라지면 안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나눔을 통해서 학생의 배움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전학공입니다. 최근 다시 강의형식의 수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데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자, 힘들겠지만
열어볼래?’처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동료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 오혜진

모둠활동(등교수업) 혹은 소통창구(원격수업)를 통해 서로 관계를 통한 협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수업형식에 대해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변혜라 전학공 활동에서 모둠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어찌보면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저항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혜진 배움중심수업 실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학공을 통해 수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관찰하면서 수업을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격수업 역시 수업나눔을 통해서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안윤주 전학공 운영이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수업을 바꾸려는 마음을 추슬러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움중심수업 실천 교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전학공 담당자는 안내자료를 참고해서 순서대로 따라해보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토론하고 함께 하는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방법을 잘 모르는 교사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한데...사실 수업 후 협의에 대해서도 어색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정용우 수업이 안된다는 것은 학생의 참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단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학교와 학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수업협의회를 하는 것이죠. 수업공개로 통해 배움중심수업 경험이 없던 교사들도 수업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수업변화의 시작입니다.

안윤주 교실이, 수업이, 학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수업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나 많이 듭니다. 다른 학교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업을 나누자고 시작하지만 수업공개 교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용우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 기대면서 수업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격려와 도움 속에서 배움중심수업이 만들어지고 실천층이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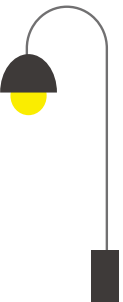
김민주 수업나눔에서는 교사들도 배우지만 학생들의 배움이 가장 큼니다. 학생을 향한 교사의 칭찬을 담은 수업 피드백으로 관계가 자랍니다. 다 같이 어려운 올해, 교사들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쌍방향 원격수업을 해도 학생을 살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소회 의실을 열어 학생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볼까? 패들렛을 활용할까? 등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후 2학년과 3학년은 작년 재작년 동안의 모둠활동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수업 참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어색해하던 1학년도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구요. 교사들도 수업나눔에 대한 요구가 커져서 수업친구와 함께 하는 수업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혜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우리학교와 양산중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교감선생님이 좋은 사례이니 원격수업을 나누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함께 고민하자, 힘들겠지만 열어볼래?’처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동료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는 교사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 수업 후 협의에
대해서도 어색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 안윤주





전학공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꿈은 좋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배움으로 학생을 만난다고 할 때 전학공은 가장 좋은 통로이며 가장 훌륭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용우

김재석 예, 맞습니다. 협의, 회의 등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수업의 질 상승합니다. 우리도 밴드를 이용해서 3월부터 과목을 개설 운영을 했지만 잘 안되어서 MS-teams를 활용해보기도 했습니다. 수업방식을 알려주는 연수는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고 학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고민스러웠습니다. 작은 학교 등교수업이 가능해지자 방역을 이유로 강의식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업나눔이 다시 시작되었죠. 칸막이를 설치하니까 짝활동만 해서 배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해서 칸막이를 치우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다음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학년 수업을 처음공개하면서 '망했다' 싶었는데 지속적인 수업공개로 통해 차츰 관계도 좋아지고 태도도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수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정용우 우리학교는 '방역수칙과 학생의 배움'에 대한 접점을 찾는 과정이 있었고, 그 후에는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대화가 없던 교실은 수업을 연 이후, 모둠활동이 시작되면서 배움을 관찰할 수 있었고 교사도 서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열려야 교사가 성장한다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각 학교와 학년에서 수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뜻깊은 이야기는

김경숙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교정 학교현장의 수업사례연구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원격수업이든 등교수업이든 혹은 강의식 수업이든 모둠수업이든 '수업 안에 학생의 배움은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혜라 교사들의 철학의 차이라든가 배움의 깊이가 다른 것이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수업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현장교사의 상황과 이해정도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도 고안해야 합니다. 천천히 가야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보형 '교사는 스스로 전문가라 자부할 수 있는가, 전문성과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들어도 수업 연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우 교사의 진지한 관찰을 통해 학생의 태도는 변합니다. 전학공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꿈은 좋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배움으로 학생을 만난다고 할 때 전학공은 가장 좋은 통로이며 가장 훌륭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전학공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입니다. 수업 나눔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나 전학공에 대한 이해 등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배움중심수업과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컨설팅단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선생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 / 답 /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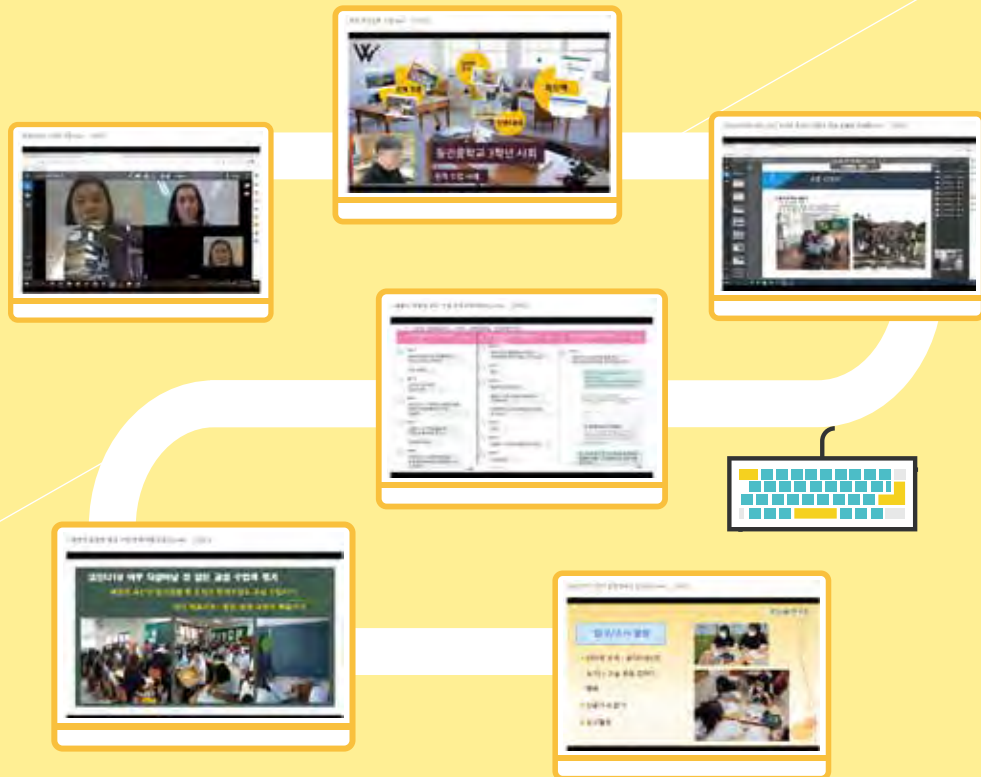
장유고등학교 **김경숙** / 양산중학교 **김민주** / 남해해성중학교 **김재석** / 함안호암중학교 **변혜라** / 거제공업고등학교 **안윤주**
 김해경원고등학교 **오혜진** /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이교정** / 봉명중학교 **정용우** / 충무고등학교 **조보형**

2020 수업나눔한마당

수업을 나누자
행복을 나누자

어디에 있든,
우리! 여기! 함께!

원격수업 등교수업의 사례를 통한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여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성찰하는 교직원문화를 만듭니다.
수업나눔한마당은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육청이 함께 합니다.



2020 수업나눔한마당 돌아보기

운영방식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 내 2020.수업나눔한마당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초·중등·특수학교의 협업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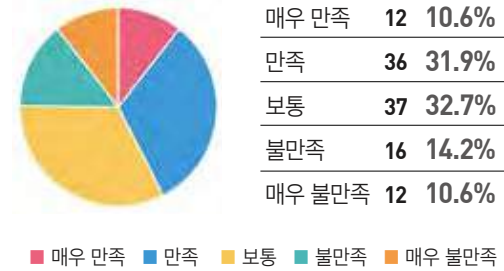
실시간 수업나눔토크 운영 (221강좌)

날짜	학교급	총	세부내용(강좌수)	총 수강 인원(명)
10. 28(수) ~ 11. 2.(월)	유치원	10	수업사례(10)	300
	초등	2	강연(2)	156
		70	수업사례(53) 전학공사례(9) 교육과정재구성(8)	802
11. 2.(월)	중등	126	수업사례(80) 전학공사례(14) 수석교사1:1컨설팅(32)	2,241
		13	수업사례 (12) 전학공사례 (1) 수석교사컨설팅 (0)	166
	특수	13	전학공사례 (1) 수석교사컨설팅 (0)	166
전체		221		3,665



설문 결과 분석 <만족도 조사 결과>

수업나눔한마당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설문분석 및 개선방향

1. 강좌 참여 학교, 교사, 연구회 등의 활동 정리 및 내용 공유의 장이 됨.
2. 자료나눔에 참여한 교사들의 자료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활용도가 높음.
3. 아이톡톡 체제의 방향성,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나 아직 학교 현장 구현은 보완할 부분이 있음.(강좌 및 수강자 관리, 유프리즘 기능 개선 등)
4. 향후 강좌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의 병행, 운영 기간 조정 등이 필요함.

함께

를 만든 사람들

| 집필 및 검토 |

교장 김동욱(진성초) / 교장 양재석(경남정보고) / 교감 송희정(진주제일중)
수석교사 신승화(거제유치원) / 수석교사 윤점이(아림고)
수석교사 이옥경(김해신안초) / 수석교사 정종희(활천중)
교사 광영현(내덕중) / 교사 권승경(김해분성여고)
교사 김경숙(장유고) / 교사 김순숙(김해은혜학교)
교사 손지미(함양중) / 교사 오혜진(김해경원고)
교사 전현주(울하중) / 교사 정미자(장유고)
교사 최선희(양산중) / 교사 한소현(천전초)

| 총괄 및 기획 |

김현희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공효순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동기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